

2020년 1월 31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감염증 공포감 확대 불구 상승 마감 세계보건기구(WHO) 비상사태 선포 이후 불확실성 해소 관점 유입

미 증시 변화 요인: 공포와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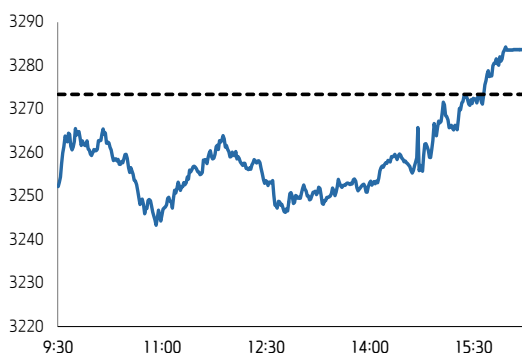
미 증시는 기업 실적과 경제지표 결과 불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이 유입되며 하락 출발. 특히 미국에서 6번째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포감이 확대되며 지수 부진을 이끔. 장중, WHO가 이번 사례에 대해 '비상 사태'를 선포한 이후 상승전환 성공. 한편, 금융주, 경기 방어주와 일부 실적 개선 기업들이 상대적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다우 +0.43%, 나스닥 +0.26%, S&P500 +0.31%, 러셀 2000 -0.07%)

미 증시는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이어지며 부진. 특히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점이 이러한 공포감을 더욱 확산. 2차감염 발생은 향후 감염증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 다만 CDC는 부부 사이라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로의 전염 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하자 조정폭이 크게 확산되지는 않음.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번 사례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 이 경우 WHO는 출입국 제한을 권고 할 수 있음. 그러나 WHO는 교역과 여행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점은 긍정적.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중국과의 철도 운송을 일부 중단했고, 체코는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등 이미 각국은 중국과의 인적 교류를 중단하거나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영향은 제한.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라는 점에서 주식시장은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음. 다만, 사태 확산 우려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듯.

한편, 주목할 부분은 과거 시장의 반응은 새로운 환자가 급증할 때 변동성을 키우다가 환자 발생 속도가 느려질 때 그 영향은 반전을 보여 왔다는 점. 중국을 비롯해 각국 의료진은 향후 10일 내외 새로운 환자 발생이 크게 증가하겠지만 이후 그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전망. 이를 놓고 보면 2월 초 중반까지 감염증으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 그렇지만,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정책이 동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주식시장에 대한 공포가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이 지수 조정폭 확대를 제한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KOSPI	2,148.00	-1.71	홍콩恒生	26,449.13	-2.62
KOSDAQ	656.39	-2.06	영국	7,381.96	-1.36
DOW	28,859.44	+0.43	독일	13,157.12	-1.41
NASDAQ	9,298.93	+0.26	프랑스	5,871.77	-1.40
S&P 500	3,283.66	+0.31	스페인	9,477.90	-0.72
상하이종합	2,976.53		휴장	921.21	-1.07
일본	22,977.75	-1.72	이탈리아	23,781.10	-1.5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아마존 시간 외로 12% 급등

마이크론(-0.49%), 텍사스인스트루먼트(-0.14%) 등 반도체 업종은 삼성전자가 보수적인 전망을 발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부진했다. 이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장중 한때 1% 넘게 하락 했으나 결국 0.16% 하락했다. 애플(-0.14%)을 비롯해 부품주인 브로드컴(-0.73%), 스카이웍(-1.41%)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부진했다. 페이스북(-6.14%)은 양호한 실적 결과 불구하고 비용증가와 규제 등으로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유입되며 부진했다. UPS(-6.75%)는 예상과 부합된 실적 발표 불구 향후 전망을 밴드 하단으로 제시하자 급락했다.

반면, MS(+2.82%)는 클라우드 매출성장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상승했다. 코카콜라(+3.25%), 램리서치(+4.27%), 테슬라(+10.30%)는 양호한 실적 결과를 발표하자 강세를 보였다. 한편, 아마존(+0.68%)은 장 마감후 실적 발표에서 큰 폭으로 개선된 결과를 내놓자 12% 가까이 급등하고 있으며, 웨스턴디지털(+0.30%) 또한 긍정적인 실적 발표 후 시간 외로 6% 내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41%	대형 가치주 ETF(IVE)	+0.37%
에너지섹터 ETF(OIH)	+0.81%	중형 가치주 ETF(IWS)	+0.27%
소매업체 ETF(XRT)	-0.56%	소형 가치주 ETF(IWN)	+0.20%
금융섹터 ETF(XLF)	+1.26%	대형 성장주 ETF(VUG)	+0.25%
기술섹터 ETF(XLK)	+0.86%	중형 성장주 ETF(IWP)	+0.20%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27%	소형 성장주 ETF(IWO)	-0.20%
인터넷업체 ETF(FDN)	-0.01%	배당주 ETF(DVY)	-0.17%
리츠업체 ETF(XLRE)	+0.23%	신흥국 고배당 ETF(DEM)	-1.71%
주택건설업체 ETF(XHB)	-0.12%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05%
바이오섹터 ETF(IBB)	-1.45%	미국 국채 ETF(IEF)	+0.10%
헬스케어 ETF(XLV)	-0.73%	하이일드 ETF(JNK)	+0.14%
곡물 ETF(DBA)	-0.76%	물가연동채 ETF(TIP)	+0.11%
반도체 ETF(SMH)	-0.23%	Long/short ETF(BTAL)	+0.4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18.79	+0.88%	-3.68%	-8.25%
소재	370.16	-0.59%	-2.04%	-4.07%
산업재	700.16	+0.08%	-1.09%	+1.83%
경기소비재	983.92	-0.07%	-2.01%	-0.24%
필수소비재	655.54	+1.05%	-0.33%	+1.32%
헬스케어	1,177.34	-0.78%	-2.99%	-0.91%
금융	507.35	+1.25%	-0.71%	-0.79%
IT	1,720.68	+0.88%	+0.11%	+6.80%
커뮤니케이션	185.19	-0.79%	-2.77%	+1.95%
유틸리티	351.64	+0.89%	+1.60%	+7.09%
부동산	246.98	+0.26%	-0.71%	+2.7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기업들의 실적 & 반발 매수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 는 2.22% MSCI 신흥 지수 ETF 도 1.49%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596 계약 순매수한 가운데 보합인 288.00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88.5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소식이 전해지자 약세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2 차 감염환자 발생으로 향후 환자 속도가 급증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입된 점도 부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2 차 감염 환자 발생은 미국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 관련 영향은 크지 않다. 물론 당분간 환자 급증에 따른 공포감이 시장의 변동성을 좌우 할 수 있으나, 과거 사례에서 보듯 결국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장중 한 때 1% 넘게 하락했다. 그러나 이는 전일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보수적인 전망을 발표한 여파라는 점을 감안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된다. 오히려 램리서치(+4.27%)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 강세를 보였고, 미 증시 마감 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이 시간 외로 12% 넘게, 웨스턴 디지털이 6% 내외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미 증시의 특징 중 하나는 양호한 실적 결과를 내놓은 종목들의 경우 강세를 이어갔다는 점을 감안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대형주들의 결과에 따라 한국 증시의 변화 될 수 있어 그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4 분기 성장률 예상과 부합한 2.1%로 발표

미국 4 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2.1%로 예상과 부합되었다. 소비와 기업투자가 부진했으나, 수출 및 주택 투자가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2.3 만건) 보다 감소한 21.6 만건을 기록했다. 4 주 평균 청구 건수도 21 만 6,250 건보다 감소한 21 만 4,500 건으로 고용 안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부진

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감이 이어지자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특히 미국에서도 2 차 감염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확진자 급증 우려가 높아진 점도 부담이 었다. 이는 향후 경기 둔화 우려를 높인다는 점에서 가솔린 수요 둔화 우려를 높인 데 따른 결과다. 더 나아가 각국 항공사가 중국행 항공편 운항 정지 등의 조치가 발생한 점도 수요 둔화 우려를 높인 점이 약세 요인이다.

달러화는 예상과 부합된 GDP 성장률과 긍정적인 고용지표 결과 불구하고 미국 내 2 차 감염환자 발생 여파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한편, 파운드화는 ECB 가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경기 모멘텀 회복을 이유로 아직 경기 부양정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전일에 이어 오늘도 장중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미국내 2 차 감염환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여행과 교역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자 불확실성 해소로 결국 반등에 성공했다.

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자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속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은 휴장이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2.14	-2.23	-6.21	Dollar Index	97.848	-0.15	+0.16
브렌트유	58.29	-2.54	-6.04	EUR/USD	1.1032	+0.20	-0.21
금	1,589.20	+0.84	+1.12	USD/JPY	108.97	-0.05	-0.47
은	17.992	+2.89	+0.91	GBP/USD	1.3091	+0.54	-0.24
알루미늄	1,731.00	-0.35	-3.57	USD/CHF	0.97	-0.33	+0.11
전기동	5,587.50	-0.95	-6.67	AUD/USD	0.6721	-0.49	-1.84
아연	2,188.00	-1.04	-6.66	USD/CAD	1.3196	-0.02	+0.53
옥수수	379.50	-1.24	-3.62	USD/BRL	4.2475	+0.51	+1.86
밀	560.50	-0.31	-3.45	USD/CNH	6.9848	+0.22	+0.76
대두	876.25	-1.88	-3.66	USD/KRW	1185.00	+0.66	+1.54
커피	101.50	-0.54	-9.86	USD/KRW NDF1M	1188.51	+0.80	+1.71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589	+0.51	-14.35	스페인	0.268	-3.00	-8.80
한국	1.557	-1.80	-13.50	포르투갈	0.277	-3.10	-12.10
일본	-0.058	-1.90	-4.10	그리스	1.146	-1.10	-17.10
독일	-0.406	-2.90	-9.80	이탈리아	0.939	-1.20	-31.30